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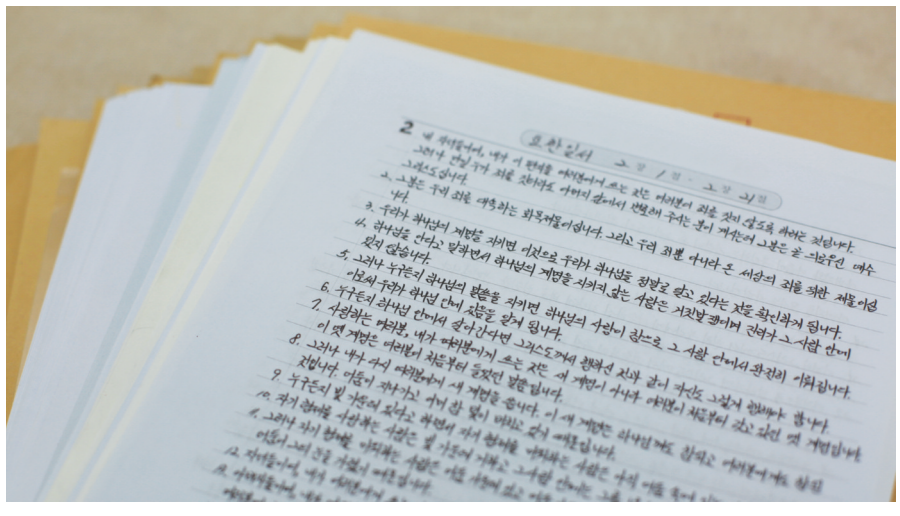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9월 27일(주일) 제1313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2020 에스라 프로젝트' 3개월여의 대장정 마쳤다
공동체 총무, 필사지 취합해서 10월 11일까지 제출



국내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한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3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2020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마감 기한이 9월 27일(주일)이다. 각 공동체 총무들은 성도들이 제출한 필사지를 성경 한 권으로 취합해서 10월 11일(주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들의 영성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실시했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경 1권을 필사했다. 교역자(전임, 파트)와 장로, 예수제자학교(JDS)도 각각 성경 1권 전체를 필사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도 적극 참여했다.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간증이 넘쳐났다. 이영진 자매(W공동체)는 "성경필사를 하면서 말씀에 눈길이 오래 머물고, 말씀을 곱씹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했고, 김재진 형제(J4U 공동체)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서승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는데, 몇 번이나 틀려서 다시 쓰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박구병 장로(관악금천공동체)는 "마지막 글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는데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열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목회자들도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박성천 목사(김포공동체)는 "몇 장째 똑같은 본문을 다시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새로이 묵상했다"고 했고,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성경필사를 하며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믿음과 생활 태도를 돌아보면서 더욱 성경적으로 세워져야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이정환 목사(송파B공동체)는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성경말씀을 손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기도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해외비전교회에서도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고백했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우에다 온누리교회)는 "틀려서 다시 쓰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지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동경 온누리교회)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0 온라인 하비스트 'Way Maker'

10월 1~3일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0 하비스트'가 'Way Maker'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10월 1일(목) 오후 8시에는 'Memory'를 주제로 지난 하비스트 집회 영상을 시청한다. 10월 2일(금) 오전 10시에는 'Way Maker' 뮤직비디오가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10월 2일 오후 8시에는 메인집회인 'Way Maker'가 막 오른다. 찬양, 노규석 목사 설교,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설교는 16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10월 3일(토) 오후 8시에는 'Way Maker' VR집회영상이 업로드 된다. VR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 집회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온누리M센터에서는 하비스트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 가정을 돕는데 사용된다.

후원 계좌: 573-810031-74605

(하나은행,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엔젤트리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회선교부에서 2020 엔젤트리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25일까지 돕고 싶은 이웃들의 사연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대상자의 정보와 사연, 엔젤트리 사연을 신청한 성도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벌써부터 엔젤트리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많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쌀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 대학교 졸업반인 탈북민 형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홍삼액을 전해달라는 사연 등이 접수되었다. 엔젤트리 사연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타교회 성도나 기관에서 사연을 접수할 때에는 사회선교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6, 3434

올해 더 풍성한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느헤미야 프로젝트

올해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은 더욱 풍성하고 뜻 깊다. 농촌에서 직접 쌀을 구입해서 도움이 필요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사르밧 프로젝트'와 차세대 가정을 위한 '가정신앙문화 세우기_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은 순과 공동체는 9월 27일(주일)까지 헌금과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헌금을 하지 않은 순은 쌀 20kg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순 이름과 송금인 이름으로 해당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에 필요한 생년월일과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각 공동체 담당목회자와 대표 장로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담당사역팀에 전달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 쌀 구입과 배송은 사회선교부가 섬기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 농어촌교회와 지역 농가에서 실시한다. 10월 11일 이후 현지에서 대상자들에게 쌀을 배송할 예정이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정신앙문화 세우기_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차세대 가정에 가정신앙문화를 세우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52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활동패키지'를 선물한다. 52일 동안 신앙의 성벽을 쌓는 활동패키지를 비롯하여 페이퍼 토이, 성벽 과자, 말씀 식빵, 추수감사 갑티슈 등의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정에서는 10월 1일(목)부터 활동패키지를 활용하여 가정신앙문화 세우기 활동을 실시하면 된다. 활동패키지는 9월 26일(토)과 27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아 가면 된다(캠퍼스별로 운영시간 다를 수 있음).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기 어려운 가정에는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국내 온누리교회 차세대 3,800여 가정에서 6,400여 명의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신앙문화 세우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문의: 02-3215-3434, 헌금계좌: 각 캠퍼스별 해당계좌

절기_ 2020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4면 기획_ 언택트 시대,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新트렌드 5면 * 다음 주 신문(10월 4일)은 추석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포스트모던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기독교 세계관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인간 지성의 확장으로 이신론적 신관을 가진 시대를 지나게 된다. 이신론(理神論, deism)은 이성적인 신론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시작에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끝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삶에 동행하며 일일이 개입하는 하나님은 부정하는 신론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은 즉시 무신론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1800년대 중후반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무신론적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모던(modern)시대를 이끄는 쌍둥이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탄생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던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싫증을 느끼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 사회변혁을 주도했던 전체주의나 독재정치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고안해낸 것이 포스트모던주의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한다.

포스트모던은 스스로를 세계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포스트모던에는 메타네러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통용되는 절대 진리는 없다. 그 대신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만 통용되는 작은 국소적 네러티브(스몰네러티브)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개개인은 그 스몰네러티브들에 자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사회는 개개인들의 독특한 의견들을 서로 잘 참고 받아주어야(관용) 한다고 주장한다.

자끄 데리다는 서양철학에서 형이상학의 해체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런 철학분야의 시도는 예술에 도입되어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해체하는 다다이즘으로 연결되어 캔버스 위에 소변기를 부착한 작품까지 등장한다.

롤랑 바르트는 문학에서 해체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작가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글을 출판하면 작가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다. 작품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문장의 해체는 문학작품뿐 아니라 법조문이나 성경의 해석에도 적용되었다. 미국 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판결할 때에도 법조문을 해체하여 입법의 정신과는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난받았다.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의 배경에도 해체주의적 문장 해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인간이 언어로 구성된 실체"라고 생각한다.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그 실체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또 소수로서 다수를 선동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짓도 진실처럼 만드는 선동문구를 절묘하게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구호로 "이성애적 결혼식의 신성함을 믿는 것은 퇴보의 증거이며,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선호하는 것은 열린 마음의 증거이다"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메타네러티브가 없으므로 세상의 시작이나 세상의 끝과 같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관심 밖의 사항이다.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포스트모던주의는 네오막시즘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소수의 핍박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면 아무리 옳은 제도나 법률이라도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프로이트의 학설을 의지해 정신질환들이 성적인 충동을 너무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핍박받는 소수는 무조건 선이고, 이들을 핍박하는 다수는 무조건 악이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선악의 규정을 합리화하는 선전도구로 사용된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들은 문제의 근원을 기득권을 가진 다수가 힘없는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해결책은 소수들이 힘을 모아 기존의 권위와 문화에 도전하여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지적인 작은 충돌과 다툼을 통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 억압된 소수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다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을 행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당하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파업, 불법 점거, 불법 파괴행위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의 해결책은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근본을 뒤흔들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른 무신론자들처럼 영적인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후세계는 없다. 죽음 후의 심판이나 윤회의 고리 등 이생의 삶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마음대로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과 네오막시즘이 이념적 배경이다. 68운동의 구호인 "모든 금지함을 금지하라"처럼 이들은 사회의 모든 권위와 주류 문화를 파괴하려 한다. 이념의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이념대로 행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신들 이념의 파괴적, 분열적 특성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라는 유혹적인 구호 때문에 다른 세계관들을 쉽게 오염시킨다.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고 우리에게도 오염된 요소들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묵상: 포스트모던이 지향하는 제한이 없는 자유의 결과는 무엇일까?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행복한 부부 만드는 '친밀한 사랑'

어느 교회 중년 부부들을 위한 부부생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부들이 일어나 자신을 소개하고, 세미나에 참가한 동기와 바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한 점잖게 생긴 신사가 일어나 인사하며 말했다.

"우린 결혼한 지 16년이 된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주위에서 하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권하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어서 인사했다.

"이이는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전 결혼한 지 16년 동안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늘 긴장 속에서 남남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 왔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나중에는 창백해지고 말았다.

부부생활 세미나가 끝난 그날 밤 그 부부는 대판 싸움을 했다고 한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려고 작정했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바람을 피우길 했어, 남들처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길 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계속 아내를 몰아세웠지만, 왜 아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도 풀리지 않았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열정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친밀한 사랑이 그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서 불이 당겨질지 모른다.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 맺어진 결혼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친밀한 사랑'이다. 열정적인 사랑은 순식간에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다. 헌신적인 사랑도 순간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랑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친밀감을 느끼는데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남자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다. 하지만 여자는 감정과 생각을 나눴을 때 비로소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다. 사례 속 남편의 경우, 일찍 집에 돌아와 같이 밥을 먹고 함께 TV도 보았지만 대화가 전혀 없었다. 남편은 늘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쌓였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스트레스였을 뿐, 그런 일을 통해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행복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밥을 먹을 때 남편이 "여보, 오늘 식사가 아주 맛있는데, 당신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여보, 당신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등 아내의 감정을 알아주는 질문을 해주길 바랐다. TV를 보면서도 아내의 느낌과 생각을 물어주거나 함께 의견을 나누기를 원했다. 그래야 아내는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지 않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즘 노년 이혼, 혹은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황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친밀감의 결여다.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다.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고운 정, 미운 정을 통해 쌓이는 것이다. 친밀한 사랑은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

느헤미야 4:1~15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반대자들과 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정치가로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무역금지 법안을 동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노예무역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을 깨닫고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당시 영국의 재정수입 3분의 1이 노예무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경제적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매국노라고 불렀고, 그를 중상모략 비방할 뿐만 아니라 암살 위협까지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0번 이상 국회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가 이 법을 발의한 지 56년 만인 1833년 7월 27일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승리한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악한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지탱해준 것은 클래팜 공동체입니다. 특히 요한 웨슬레 같은 영적 지도자의 충고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반대자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휫필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을 수많은 악한 반대자들이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집회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폭도들이 일어났고, 그들에 대한 암살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 한 복판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지 휫필드는 세 가지 원칙으로 반대자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물의를 빚고 있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셋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를 두려워하거나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몰두할 뿐입니다. 비난과 논쟁,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 수치스러운 평가와 수모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섬기며 행한 많은 선한 일마저 잊히는 것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반대를 겪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반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두 가지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작은 반대만 있어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대 없이 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반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 선한 일에도 반대를 허용하십니다.

둘째, 자신을 반대하면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표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법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동기와 목표,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위험을 피할지라도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악한 반대가 존재합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주제는 '악한 반대자들의 영적 전투' 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면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일에 쓰임 받는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간증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 천사의 모습을 하지만 그 본질은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에는 거짓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고는 사단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악한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그 백성들의 역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분명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행보는 매우 순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전달해서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악한 대적들, 반대자들의 힘겨운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이루십니다.

악한 대적들의 방해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하는 대부분의 공격이 심리전 단계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악한 반대자는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놓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 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1~3절).

비웃음을 악마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흔적을 사용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일입니다.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조롱과 비웃음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직접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지 휫필드도 느헤미야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또 대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근거 없고, 못된 공격을 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4~5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소리를 높인 장소는 대적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뤄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서 대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웃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전체가 절반 높이까지 복구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보기에 생각보다 복구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자 전략을 바꿉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선택 기도하고 일하며 싸울 준비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훼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7~9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며 동시에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위협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악한 대적자들이 절대로 총력전으로 공격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면에 계속〉

2020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추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에스라 3:1~6	가족 중에서
설교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12장(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들어가는 말

금년 추석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명절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고향 방문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고, 성도들은 예배당 출입과 예배가 제한되었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마음껏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던 기쁨을 보류한지도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제단을 다시 지으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오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여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파괴된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영적 준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여 제단부터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1~2절). 여기서 '일제히'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며, '제단을 다시 짓기'란 예배의 갈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당 출입도 단절되었지만, 공동체로서의 영적 연합과 예배의 갈망마저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공동체적인 연합과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는 결심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옛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괴된 솔로몬 성전의 '옛터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제단을 세웠습니다(3절).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으며,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4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한 그것이 다시 복구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가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는 '옛터'라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억 위에서, '기초'라는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요 4:23~24).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날 수 없고, 예배당이라는 실체가 아직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록된 대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는 헌신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아직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솔로몬의 옛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2절). 이스라엘은 그의 통솔에 따라 정기적인 예배를 구별해 드렸고, 모든 절기의 예물도 끊임없이 올려드렸으며, 무엇보다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5절).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6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구심점 없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며 미래의 비전을 밝혀준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 실제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지나고 나면 온전한 공동체와 예배를 이루리라는 다짐보다 아직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삶 자체로서 성전이 되는 것이 오늘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됩니다.

나가는 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과 같은 막막한 현실 같아 보이지만 다시 일제히 예배드리기를 결심하며, 다시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헌신하고, 다시 삶 자체가 성전이 되리라는 비전을 품는 이 시대의 스룹바벨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OOO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45:1~4	다같이
찬송	찬송가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4	가족 중에서
설교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설교자
찬송	찬송가 380장(나의 생명되신 주)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지 OO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1절).

사도 바울은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비관적인 슬픔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스런 환희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초막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성막에 거하심에 기원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이곳 광야가 아니라 영구토록 거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거나 이 땅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2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향에 대한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 삶으로 국한되지 않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는 것과 '덧입고자 함이라'는 고백은 이 땅의 삶을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회피하거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바라는 경건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고 합니다"(4절).

사도 바울이 벗은 자가 아닌 덧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도처에서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택트 시대,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新트렌드

비대면 시대, 이보다 좋은 도구가 없다!

VR체험 한 번도 안 해본 기자의 'VR예배 체험기'

VR게임, VR영화, VR애니메이션, VR다큐멘터리, VR교육… 요즘 VR 관련 콘텐츠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인공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특정한 공간, 환경, 상황에서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해서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아이콘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언택트 시대, VR이 비대면 예배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벌써 VR을 활용해서 주일예배와 소그룹모임을 하고 있는 한주교회(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94다길 40)를 찾았다. VR체험 한 번도 안 해본 기자의 'VR예배 체험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9월 13일 VR을 활용해서 주일예배와 소그룹모임을 하고 있는 한주교회를 찾아가면서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VR을 접목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VR체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자에게나 낯선 용어이지, 이미 VR은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 VR교육, VR영화, VR게임, VR체험 등 VR 관련 콘텐츠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유튜브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VR'을 검색하면 아프리카 사자나 코끼리, 남극 펭귄, 캄차카 활화산의 분화구,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우주탐사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VR영상들이 즐비하다. 집 안에서 빅토리아 폭포의 물줄기가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 장엄하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주교회에 도착했다. 김태훈 목사와 인사를 나누고 예배당을 살폈다. 한 스태프가 강대상 하단 왼쪽에 별도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URL 주소가 도착했다. 한주교회 VR예배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였다.

오전 11시, 주일예배가 시작됐다. 스마트폰으로 VR예배 화면과 예배당을 번갈아가며 대조해보았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상하좌우로 쉴 새 없이 터치해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좌우로 움직여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예배당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객석쪽으로 돌려봤다. 맨 뒷줄에 앉아 있는 기자의 모습이 보였다. 예배 현장을 360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VR예배의 특징이다. 조금 더 실감나는 VR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VR 전용 헤드셋을 써야 한다. VR 전용 헤드셋이 없이도 VR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은 없다.

1. VR카메라로 예배를 촬영하고 있다. 2. VR헤드셋을 끼고 예배드리고 있는 한주교회 성도.

생생한 현장감은 탁월 그러나 피로도는 단점

한주교회는 전형적인 동네교회다.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교회 옆으로는 사찰이, 맞은편에는 이단 교회가, 뒤편으로는 망우리 공동묘지가 자리해있다. 한주교회 교역자는 김태훈 담임목사와 이종길 전도사 두 명뿐이다. 지금은 등록교인이 180명 정도 되는 건실한 중형교회로 성장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주교회는 노회에서 교회 존폐를 논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14년 넘게 교회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주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회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VR을 활용한 예배와 소그룹모임이 김태훈 목사가 시도한 교회를 살리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 하나였다.

"3년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어요. 평생 교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누워만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권사님께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 VR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VR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는커녕 소그룹모임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와 소그룹모임에 성도님들을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모일 수 있는 허용된 인원만 모여서 VR카메라로 예배 실황을 촬영하고, 그 링크를 성도님들께 보내서 참여하게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댓글로 대화하는 일을 지난 4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VR예배와 소그룹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VR을 활용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VR을 활용해서 주일예배와 소그룹모임을 할 수 있고, 이 밖에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성지순례 체험, 청소년 찬양집회, 차세대 예배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두 팔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외치면 집에 있는 차세대들이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터치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좋은 VR기술도 단점이 있습니다. 피로감입니다. VR헤드셋을 장시간 쓰고 있으면 눈과 머리가 피곤하고, 약간 어지럽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범용화 되지 않은 기술과 기계이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물었다. 김태훈 목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많은 분들이 VR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싼 장비와 기기,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VR카메라 한 대면 충분합니다. VR헤드셋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VR예배를 드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VR카메라와 VR헤드셋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 목사는 VR예배와 소그룹모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문지방'이라는 말이 있지요? 생각의 문지방을 넘으면 어느 교회나 충분히 VR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그룹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김태훈 목사는 작은 교회들이 VR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들이 제작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교회 VR예배에는 기껏해야 한주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참여하는 게 전부지만,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는 수만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비, 노력대비 얼마나 효과적인 일입니까? VR체험 콘텐츠 제작도 온누리교회가 하면 보다 손쉽고 수준 높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나 양화진 선교사 체험 등을 VR콘텐츠로 제작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님과의 일대일 만남도 VR로 가능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서재에서 VR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댓글에 답해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해준다면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VR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비대면 시대 이보다 좋은 선교, 전도, 양육, 목회 도구가 없을 것입니다."

***VR과 AR의 차이**

VR과 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가 AR이다. AR(Augmented Reality)은 '증강현실'이란 뜻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VR)은 실제 환경만 볼 수 있지만,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정보를 섞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 현실감과 부가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거리를 비추면 화면에 인근 상점이나 건물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비치거나 상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가격정보가 나타나는 기술 등이다. 가상현실(VR)보다 현실감이 뛰어난 것이 증강현실(AR)의 특징이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달란트를 발견하거나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고,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권면하는 피아니스트 이지원 권사(강남E공동체,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다.

이지원 권사는 찬송가 연주를 통해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그녀가 찬송가 연주를 통해 지구촌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명성 있는 피아니스트라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피아노 연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피아니스트 이지원 권사의 달란트 활용법

피아니스트 이지원 권사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연주회, 앨범 수익금을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한다.

피아니스트가 찬송가를 연주한다. 성도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출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연주회와 앨범판매 수익금은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한다. 후원금은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된다.

물론 크리스천 피아니스트가 아니어도 자선연주회를 열거나 앨범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명세가 있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면 선뜻 자선연주회 개최와 앨범 발매가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피아니스트의 달란트 활용법이 귀한 이유다. 크리스천 피아니스트가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크리스천 관객들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선연주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지원 권사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 그때부터 찬송가를 연주했다. 그런 그녀에게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은 도전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그 시작은 자신의 독주회였다.

"예체능계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커리어를 쌓는 게 일상입니다. 피아니스트들은 그 방법 중 하나로 연주회를 선택합니다. 저도 여느 때처럼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본 아프리카 아동들의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지원 권사가 떠올린 아프리카 아동들의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은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들을 돕고, 말라리아 예방사업과 HIV 아동들의 생계 등을 돕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지원 권사의 선한 일의 대상과 후원처는 정해졌는데 문제는 연주회 티켓을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가 남아 있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아닌 이상 티켓을 직접 구입해서 연주회에 오시는 관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관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송구하지만 후원을 위한 연주회를 하는데 티켓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티켓 구입을 부탁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주회 티켓을 파는 것은 관례를 깨는 일이거든요."

이지원 권사의 지인들이 흔쾌히 응해줬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연주회 티켓을 구입해줬다. 몇몇 지인들은 연주회 티켓을 수십 장 구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 과정에서 이지원 권사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

"사실 저는 달란트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피아노 연주는 제 달란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단연 피아노 연주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그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활용하는 그 자체가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의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회를 계기로 이지원 권사는 NGO 더멋진세상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실행위원은 교회 안팎에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홍보하고 동역자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지원 권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지원 권사는 선행과제가 있다고 했다.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교회나 반주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귀하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연주지만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입니다. 당시에는 피아노 연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지원 권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외국생활을 마치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다.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수요여성예배와 새벽기도회에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작곡한 나운영 장로님이 운영하시던 유치원에 다녔고, 학교도 미션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교회음악과 멀어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촌동에 집을 구했는데 온누리교회 바로 옆이었고요. 수요여성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았든지 해외를 다녀와서 짐도 안 풀고 수요여성예배 먼저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교회음악과 연주들이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같은 곡과 악보지만 대하는 마음이 달랐다.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건반을 누르는 손길에 기도를 담았다.

"예배 음악을 전공하거나 교회에서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는 성도들이 비슷한 어려움이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일이나 밀린 과제처럼 억지로 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섬김을 멈추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가를 연주할수록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이 늘어난다

요즘 이지원 권사는 찬송가 연주에 푹 빠져 있다. 찬송가를 연주할수록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지원 권사는 찬송가 645곡 전곡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러블리 가스펠(Lovely Gospel)'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곡들은 러블리 가스펠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지원 권사가 연주한 찬송가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16곡을 모아 앨범 〈GRACE〉를 발매했다. 이 앨범은 '참 아름다워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로 끝난다.

"첫 곡 '참 아름다워라'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묵상하게 하고, 마지막 곡인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앨범의 마지막 순서에 곡을 배치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연약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십자가를 지는 여정까지 나가가야 하지 않을까를 일깨워 줍니다."

이지원 권사는 앨범을 발매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다. 교회 안팎의 목회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앨범 제작을 도왔고, 홍보에도 힘써줬다. 여러 성도들이 수십 장씩 앨범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번 앨범의 수익금 전액은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의 마음이 어려운데 찬양을 통해 위안을 얻고, 앨범을 구입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지원 권사의 앨범 〈GRACE〉는 오프라인 두란노서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
그 마지막 이야기

■ 어느 네팔 선교사의 간증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선물

살아가다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가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2020년이 딱 그런 시간인 듯하다.

네팔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금 늦게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시작되었다.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현재까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과 대면하고 있다. 급속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이어지면서 네팔 당국에서는 국가봉쇄령을 내렸다. 비자일수에 제한이 있던 상황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눈물을 흘리며 네팔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내 뜻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네팔을 위해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언제쯤이면 내가 사랑하는 그리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을 빼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재택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때 그들과 함께 그 땅에 있지 못하는 현실에 한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한다. 마음 아프고 어려운 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무렵,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 청년들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 선교사역 '블레싱 커넥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는 지난 4년 동안 한결같이 네팔 중서부 지역에 있는 머나먼 사역현장을 찾아와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고, 네팔과 네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주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 준 귀한 청년들이다.

우리는 이번 블레싱 커넥트를 통해서 3주 동안 매주 온라인 화상채팅으로 네팔의 상황과 기도제목, 개인들의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대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힘을 주고 얻는 만남 그 이상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블레싱 커넥트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네팔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하며 해마다 찾아오는 가족 같은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모이고, 네팔을 꼭 안아주며 눈물로 함께 기도한 시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이루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사진은 작년 하늘대학부 네팔 아웃리치.

블레싱 커넥트를 마치고 며칠 뒤 하늘대학부 네팔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선교 사역은 마쳤지만, 앞으로도 네팔을 향한 기도모임과 나눔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내가 다시 네팔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연락을 받고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 내 마음과 같이 네팔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린 청년들이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내밀어 주는 그 손이 참 고맙고 든든했다. 홀로 큰 짐을 진 듯 매주 현지 사역자들과 네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상황에 조금은 힘들고, 지쳐있었는데 동역의 기쁨을 맛보면서 새 힘을 얻었다. 나로 자랑할 것 하나 없이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블레싱 커넥트는 올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한다.

/ 김영미 선교사(네팔)

■ CH PLUS공동체 '안디옥 무브먼트'
C국 유학생이 보낸 편지

"함께 선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국에서 온 량량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0년 되었고, 그 중에서 8년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교회음악(찬양사역)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1/3,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20대를 한국에서 보내며 세상의 온갖 고초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방황하며 인생의 방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제목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드렸던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초심 잊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고, 또 다른 기도제목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 CH PLUS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한 '안디옥 무브먼트(CH PLUS공동체의 미션 커넥트 프로젝트)'는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지쳐갈 무렵, CH PLUS공동체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H PLUS공동체는 유학생들과 교제하며 위로가 되는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유학생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에 응답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제목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낯선 땅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 섬기겠다"고 한 고백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CH PLUS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초심과 믿음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CH PLUS공동체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환대해 주는 모습,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같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우리 앞에 놔주는 모습, 사역이 끝났는데도 항상 보고 싶다고 연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복음을 전하러 타 지역에 가는 것을 선교사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 힘이 들 때 기도제목을 말할 수 있고, 외로울 때 편하게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포기하고 싶을 때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CH PLUS공동체와 함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귀한 인연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CH PLUS공동체 청년들.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 또한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누리교회 CH PLUS공동체를 만난 것입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량량 전도사

코로나19, '이웃사랑' 실천하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 비대면 아웃리치

"이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구세군보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택 사관입니다. 구세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개신교에 속한 정통교단으로 목회와 사회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명칭도 목사를 사관, 전도사를 담임보, 장로를 정교, 집사를 부교라고 부릅니다.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 충북 보은에 임명받아 내려온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불교, 무당 세력이 90%, 천주교, 무교가 6% 정도, 약 4% 정도의 인구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 구세군 교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구세군보은교회가 온누리교회를 만난 지는 4년이 되어갑니다. 경기A공동체 담당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보은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만나면서 저희 교회와도 인연이 닿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영성과 진실된 마음이 저희에게 통했고, 함께 보은지역 어려운 교회와 영혼구원에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교회 10여 곳을 선정해서 경기A공동체 다락방별로 한 교회씩 연결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마다 환경과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담임교역자의 의견을 100% 수용해 주면서 맞춤형 선교사역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수리, 문화교실, 식사제공, 의료봉사 등의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주일예배도 함께 드리며 아주 큰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러 오고 있지만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그 교회에서 준비한 방법대로 선교하는 사례가 많은데 온누리교회 경기A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보은지역의 현실에 딱 맞는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경기A공동체 아웃리치에서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까지 해주셨습니다.

구세군보은교회는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 성도들이 선물한 전도용품으로 지역전도를 실시했다.

구세군보은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실시한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를 통해 2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10여 명이 등록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사역 중에 신장건강이 악화되어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중보기도 해주시고, 병원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병문안 오셔서 위로와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퇴원해서도 늘 전화와 SNS로 마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웃리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 성도님들이 비대면 아웃리치로 섬겨주셨습니다. 풍성한 전도용품(부채, 코로나19 키트 등)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상황이 어렵지만 집집마다, 상가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후원이 들어오면 저희보다 어려운 곳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퍼져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돌보는 사역에 멈추지 않고, 한국을 뛰어 넘어 전 세계 어려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김윤택 사관(구세군보은교회)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0선교, 선교사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내가 만든 영상콘텐츠의 역할과 힘

일본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성경공부 모임, 기도회 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성도들과 안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 출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정말 새로운 것을 적용해보자'는 의지를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색한 말이 익숙해지고 있다. 선교 대상자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네트워크로 본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다.

유튜브를 보기만 했지, 내가 채널을 오픈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3년 전부터 CGN TV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콘텐츠를 내가 직접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했다. 아직 기계치고, 카메라 장비 사용이 익숙하지 않지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다.

3년 전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와 교회에 관한 책 한권을 들고 관서지역 교회 30여 곳을 돌았다. 그때는 일본 선교와 교회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아웃리치팀에게 소개해주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일본 교회를 촬영하면서 교회 역사와 기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역사를 사랑하게 됐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했다. 부족한 실력도 고민이었다. 눈물로 세워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복음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강진아 선교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영상 촬영 중에 하마나카 군(왼쪽에서 세 번째)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일본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본 일본인들이 "몰랐던 내용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 교회가 집 근처에 있는데 가보고 싶어졌다", "앞으로 제작될 영상을 기대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 다음기회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좋은 반응은 다른 전도활동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2000선교본부가 실시한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은 코로나19로 선교가 어려워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주었다. 일본 오사카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 교회의 역사를 성도들이 알게 되면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역사를 느끼게 된다. 전도대상자들이 집 주변에 의미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따로 생각한 콘텐츠도 있지만, 한동안은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와 지역 교회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내가 제작한 영상이 단순히 교회 홍보 차원이 아니라 일본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명하기를 바란다. 교회 자체가 간증이 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편견을 해소하고,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진아 선교사(일본)

*유튜브 채널 QR코드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원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괌에 살고 있다. 13년 정도 괌 온누리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곳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못 가고 있다. 예배당에 못 간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말씀을 잘 읽지 않게 되고, 점점 믿음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꾸준히 읽지 못하고 있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다.

때마침 수원 온누리교회 유영순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OBC 성경일독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 온누리교회의 OBC 양육 프로그램을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어서 희망사항에 그쳤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흥분되고 기뻤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강의를 소개했다. 그들도 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다시피 한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촘촘히 보고 있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Lydia Lee 성도가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나 유영순 목사님의 OBC 성경일독학교는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를 들으면서 좋은 점들이 아주 많았다.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고, 말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므로 성경의 구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둘째, 구약 각 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다. 구약 각 권의 중요한 핵심 사건과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유영순 목사님이 알려주신 특유의 말씀구절 암기방법이 좋았다. 성경 각 권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레위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다. 셋째,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았다. 넷째, 구약은 워낙 긴 시간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어서 왠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유영순 목사님의 재치 있고 섬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들었다. 다섯째, 성경 말씀을 설명함과 동시에 권면과 위로와 도전을 주셨다. 매일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과 도전을 받고 있다. 여섯째, 동영상을 여러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바다 건너 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강의를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목사님처럼, 때로는 믿음의 선배처럼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고 외로운 시간에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유영순 목사님과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Lydia Lee 성도(Christ's Bible Fellowship Guam교회)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우리는 공간의 제약 뛰어넘어 함께 하고 있다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이하 STAND)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STAND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세 가지 기대감을 나누고 싶다. 첫째, 영적성벽 재건을 소망하는 지체 입장에서 갖게 된 기대감이다.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영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STAND를 통해 우리 모두의 영적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목소리를 기대하신다. 느헤미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줄 믿는다.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호수아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호수아공동체가 매주 월~토 오후 10시에 온라인(ZOOM)으로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를 하고 있다.

둘째, STAND를 섬기는 입장에서의 기대감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했다. STAND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밤 300여 명의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영적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번 STAND에서 PPT 슬라이드와 배경음악을 송출하는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매일 기도회 1시간 전에 교역자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리허설을 하고, 기도회가 끝난 뒤에는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러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송출을 담당한 건 하루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감사했다. 매일 밤마다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다. 그들의 손길이 STAND의 모든 영역에 닿아있었다. 기도회를 위해 애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셋째, STAND에 참여하는 지체의 입장에서의 기대감이다. STAND에 대해 여러 지체들과 나눈 적이 있다. 직접 기도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되는 체험을 고백하는 지체들이 많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함께 하고 있다. STAND 덕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음을 뜨겁게 체험하고 있다. 공동체가 하나될 수 있는 영적 통로로 STAND가 쓰임받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보이지 않는 실재를 믿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믿음의 눈이 뜨이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 바로 세워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 박은혜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위드그룹)

책 읽어주는 목사

우연히, 흔적, 유일한 길, 응답

〈클릭전도〉
이광수 저 | 모자이크 메시지
| 1권 당 2,000원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다.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이다. 이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마저 멈춰 선 느낌이다. 마냥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전도를 멈출 수는 없다. 주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a)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클릭전도〉는 4권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연히?(By accident?)', '흔적(Traces)', '유일한 길(One way)', '응답(Answer)'이 주제다. 4권의 소책자는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건네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다. 창조, 기도, 성경, 십자가 등 주제별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림을 같이 넣어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연히?(By accident?)' 책자는 스케치북 위에 그려져 있는 하나의 동그라미를 제시하며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짧지만 단순하고 강력한 논리로 독자들의 수긍을 이끌어 낸다. 결국 독자들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기적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열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백 억짜리 수표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김질하게 한다.

'흔적(Traces)' 책자는 추론의 묘미가 있다. 깊은 산속에서 작은 움막을 발견했다면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움막은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중력, 자전, 공전, 사계절 등 자연법칙과 질서를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법칙과 질서는 우연히 발견될 수 있지만, 우연히 만들어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성경은 누가 남긴 흔적인지를 질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결국 독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참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다.

'유일한 길(One way)' 책자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을 선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며 비상식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죄 문제 해결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완벽한 죄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성취했는지를 반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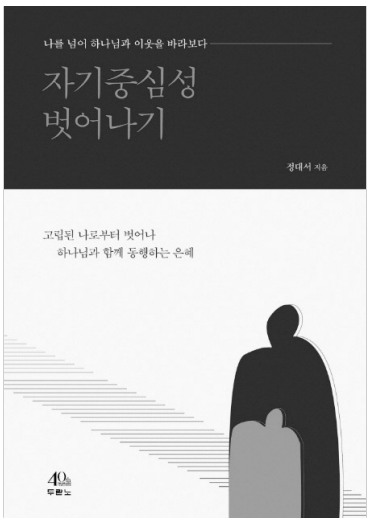
'응답(Answer)' 책자에서는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온유한 성품, 능력까지 소개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듣고 응답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 책자를 통해 우리의 작은 흐느낌에도 귀 기울이며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클릭전도〉의 장점은 대면전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릭전도〉는 전도대상자가 전달받은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전도에 대한 반감을 줄여준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금, 성도로서, 제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백신이 있음에도 아무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전도자의 삶을 작심해 보자.

이광수 선교사
(평택M센터)

두란노 신간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서라!



〈자기중심성 벗어나기〉
정대서 저 | 두란노 | 16,000원

자기중심성이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기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며, 이와 다른 뜻이나 견해는 무시하거나 비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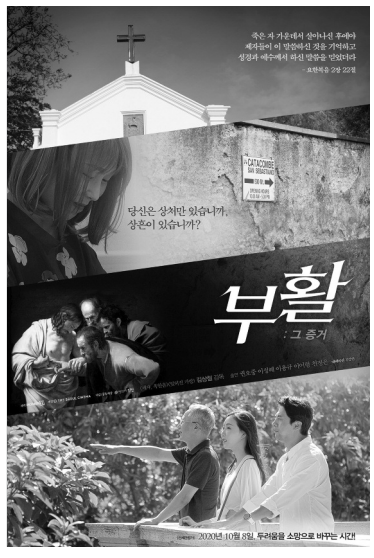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장로이자 BEE Korea에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담당해온 저자가 부부들과 대화하며 발견한 사실이 있다. 부부간 갈등이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중심성의 여섯 가지 속성(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 우월감으로 쌓은 교만의 바벨탑, 자기애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권리 주장, 권력에 눈 먼 자기 주도성, 무관심으로 쌓은 나르시시즘의 성)을 논하며 자기중심성의 폐해를 면밀하게 진단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제시한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자기중심성에 갇혀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죄인 줄도 모르는 채 자기중심적 믿음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읽으면 더욱 좋다. "자기중심성의 탈을 벗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서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저자의 목소리에 깃든 애정 어린 조언과 따끔한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꼭 봐야 할 기독영화 '부활: 그 증거'

죽음의 두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부활: 그 증거'

인간이 죽음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닐까?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어령 교수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죽음 너머 부활과 그 증거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영화 '부활: 그 증거'는 고통 가득한 세상을 떠나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 여정이다. '제자, 옥한흠', '잊혀진 가방', '순교' 등을 연출한 김상철 감독이 제작했다.

이 영화는 이용규 교수(〈내려놓음〉 저자), 배우 권오중, 이성혜가 인도 바라나시(힌두교 성지)와 첸나이(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의 무덤이 있는 곳),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지하묘지) 등지로 부활의 증거를 찾아 여정을 떠나며 시작한다. 인도와 로마를 거치는 이 여정의 최종 도착지는 한국이다. 무신론자였다가 뒤늦게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박사(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말기 암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이긴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천정은 자매(피아니스트, 춘천한마음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 신앙으로 털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몸소 부활을 전파하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상영문의: 서울극장 02-2269-2700, (주)영화사 진진 02-3672-0181

CGNTV 추석 특집 프로그램

CGNTV 추석 특집 프로그램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는 최영기 목사가 출연해서 가정교회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가정의 소중함과 회복

CGNTV가 '가정의 소중함과 회복'을 주제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9월 27일 오후 5시 40분 방영되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는 가정교회 사역자 최영기 목사가 가정교회의 유익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제사로 인한 갈등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9월 28일과 29일 오전 8시 20분 방영되는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 2〉에는 신일교회 배요한 담임목사가 출연해서 제사의 의미와 이를 대하는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10월 4일 오후 8시 10분 방영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는 강부중 권사 가정과 김주희 집사 가정이 출연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변화와 은혜를 나눈다.

이 밖에도 추석특집 〈예수님이 좋아요〉,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가정의 의미와 회복을 다룬 특집 다큐 〈절망에서 희망으로〉, 〈싱글벙글 -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 영화 〈오두막 그 후〉, 〈고고송〉, 특집 단막드라마 〈다시 봄〉 등이 방영된다.

CGNTV 시청안내

IPTV: KT Olleh tv ch.237번, SK B tv 302번, LG U+tv 271번
케이블: D'LIVE 304번, CJ헬로 322번, gcs푸른방송 ch.159번, 현대HCN ch.550번
다시보기: 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 제작 및 제공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주일 설교 본문 '느헤미야'를 주제로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서 차세대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에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기도 방법, 주제 영상 등이 담겨 있다.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은 부서별로 제작되었다. 예수님의 꿈아이에서는 '느헤미야의 다섯 손가락 기도'를 주제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방법을 소개한다. 꿈이자라는땅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과 성경퀴즈, 가정 나눔 등을 제시하고 풍성한 가정예배를 돕는다. 파워웨이브는 주일 설교 본문에 맞는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02-3215-3523

서빙고 화재대피 훈련 실시

직원 50여 명 참가

지난 9월 22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빙고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실시한 이번 화재대피 훈련에는 간사, 선교재단, 청소미화용역 직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서빙고 화재대피 훈련에서는 화재 경고음이 울리면 안내요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는 과정을 훈련했다. 소화기 분사방법도 배웠다. 김연선 간사(목회기획실)는 "소화기를 직접 분사해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면서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NS청년부, '허들링 기도회' 시작

토요일 오전 11시, 저녁 9시, 주일 오후 2시

SNS청년부가 공동체 연합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허들링(Huddling) 기도회'를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토요일 저녁 9시와 주일 오후 2시 ZOOM으로 진행된다. 각자 원하는 시간과 편안한 장소에서 참여하면 된다.

허들링 기도회는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겨울 추위를 이겨내듯이 공동체가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의: 02-3215-3745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봉사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온라인 봉사자를 모집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역할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은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행복한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길',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샬롬이스라엘, 제1기 'Why Israel?' 개강

제1기 이스라엘선교학교 'Why Israel?' 세미나가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샬롬이스라엘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shalomisrael.or.kr), 카카오채널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8550-7930

화성M센터, 무슬림 전도에 박차

지역 무슬림들에게 화성M센터 호감도 상승

화성M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 학생 우밋을 도운 일을 계기로 무슬림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M센터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두 팔이 골절 당해서 입원한 무슬림 학생 우밋의 병원비를 지원했다. 우밋의 부모는 "같은 무슬림도 못 도와줬는데 크리스천들이 먼저 달려와서 도와줬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화성M센터가 우밋을 도운 미담이 지역 무슬림들에게 전해지면서 호감을 사고 있다. 앞으로 무슬림들과 교제하고 전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현 선교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주민들을 돕는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 이주민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성M센터를 세우신 이유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 소그룹 리더 20명 양성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 이끄는 역할

NGO 더멋진세상이 FCBH와 함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소그룹 리더 20명을 양성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는 문맹자도 쉽게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오디오 성경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사역이다. 이번에 양성한 소그룹 리더들은 코트디부아르 10여 개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를 이끄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소그룹 리더 Vangah Claude는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가 코트디부아르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 모집

10월 18일~11월 15일 온라인(ZOOM) 강의

사회선교부 은빛날개사역팀에서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액티브S클럽(Active Senior Club)은 퇴직이나 은퇴 이후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온라인 액티브S클럽에서는 퇴직 및 은퇴자가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사역자로서 비대면 사회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독서토론 및 나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1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5336-582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쉽고 깊게 이해하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문의: 02-2078-3456

'크리스천 양육자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도 열린다.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문의: 02-2078-3265

▌창조신앙스쿨 간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명소연 성도(경기A공동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배웠던 진화론이 신념처럼 박혀서 비판적 사고 과정 없이 순응적으로 익숙해져있었다. 반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의 신화처럼 받아 들였던 것 같다. 하나님을 위기상황 때마다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찾는 대상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태도를 점검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통해 나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의 한 형태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됐다. 내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종교에서 불리는 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속 이야기들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나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순응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태도가 결국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신앙의 시간만 흐르게 할 뿐, 질적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통해 하나님과 창조, 성경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됐다. 하나님의 창조 흔적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창조를 믿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이후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더 깊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세대에 창조과학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번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받은 도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원죄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으며,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져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심히 아름답더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이켜 주신다. 이것이 내가 여전히 살아야 될 소망이며, 희망이다. 동시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이 앎의 지식과 함께 가슴으로 받아들여졌다.

▌온라인 OBC 로마서 수료 간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

/ 정모세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출석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시작됐다. 그 힘든 상황에 4개월 정도 진행된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는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위로가 된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아내의 뜻하지 않은 암 투병과 신약 허가를 받고 미국 출시를 진행하게 된 회사 상황과 맞물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중에는 성남에서 근무하느라 대전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주일에도 다시 성남으로 가야 하는 부담감에 다른 활동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떤 양육과 교육도 받지 않고 보낸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책상 앞으로 부르신 것 같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엄두도 내지 못했던 OBC 강의를 듣게 됐다.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을 배우게 됐다.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강해해주시는 담임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때로는 어렵기도 했다. 이제껏 성경을 이렇게 깊게 공부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선배들의 깊은 고찰과 묵상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죄인된 내 삶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

숙제를 제출할 때마다 아내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윤석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내는 감사하게도 8번의 항암치료를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 많이 힘들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크게 열이 나거나 응급실에 가는 일은 없었다. 아내가 힘든 시간을 잘 견디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치료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모든 과정 가운데 이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 깨끗하게 회복될 아내와 함께 바울의 선교 열정을 품고 주 안에서 열심히 섬기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사모한다

/ 박정진 성도(서빙고공동체)

청춘과 젊음을 주께 드린다고 힘을 다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율법적인 것들에 얽매여 사람과 단체를 위해 살았다. 내가 병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다니던 교회를 나와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사람이나 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거듭나고 싶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찬양이 거부감이 들어 하기 싫고, 기도조차 입을 벌려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양육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나의 독특한 트라우마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양육자를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결국 아무런 기대 없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신청했다. 양육자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선하심이 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첫 만남부터 양육자님께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예민해져 있었다. 양육자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셨다. 모든 관계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며 인내하도록 기도해주셨다. 그렇게 원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내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갔다. 회복될 것 같지 않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심리상담 공부를 하며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어려운 시국에도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고도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를 기다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명의 삶〉으로 QT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이것이 내게 작은 도전이자 변화의 시작이다. 내가 겪은 남모르는 아픔과 트라우마를 도리어 사용하시고, 신앙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분별의 영과 진리로 상처 입은 자들을 돕는 일에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사모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 김신실 형제(중국 유학생)

안녕하세요. 김신실입니다. 한 달 전에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팠습니다. 중국에서 걸렸던 췌장염과 같은 통증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혼자 살면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병원 의사들과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목사님께 전화했고, 목사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검사받고 링거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병원에 오셨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도 며칠씩 차례로 오셔서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이 비싼 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퇴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위해 헌금을 해주셨고, 청년부 친구들도 SNS로 저의 사정을 물어주는데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공헌도 없고, 예배드릴 때도 반은 이해하고 반은 모르는 정도이며, 청년부 SNS에서는 말도 안 하고, 영상모임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치료비 900여 만 원을 모두 내주셨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도 병원비를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를 생각하면 내 옆에 천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영원히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기도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김종건 장로
(분당B공동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삶이 뒤틀리거나 마비되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엄중한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하나님을 잊고, 부와 권세, 사회적 성공을 위한 맘몬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생명윤리, 가정을 파괴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힘을 정의가 아닌 저희들을 위해 휘두르는 교만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저희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를 벌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을 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저희 모두를 회개로 이끌 이사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나와 상관없다' 고 흘려버리는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씀 따라 행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나를 축복하는 클럽' 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일의 일상으로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빨리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하소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어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님 되심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칼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

이양자 권사
(수원 온누리교회)

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분열되고, 경제가 위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급박한 기도제목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비상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각처에서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권사님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한참 나라가 혼란스런 시기에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때 분단된 국가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활개 치는 것을 보며 '이러다 큰 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다. 놀란 가슴과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고자 책상에 앉아 큐티를 했다. 그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셨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 잠깐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찾고 계셨는지 온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 청계산에 7명의 권사님들이 모였다. 나라의 위기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권사님들이셨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회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고,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이었기에 승리의 전리품도 있었지만 아픔과 절망의 시간도 많았다.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했을 때는 기도방을 막아 교회 로비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교회 뒷산에서 한동안 방황하며 기도해야 했지만 함께한 권사님들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뭉쳐 나라를 향한 기도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회 시간에는 '개인 기도는 없다' 를 선포하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갔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소모임조차 금지된 요즘도 기도를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SNS채팅방을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 시간을 정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질병과 재정 문제 등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이 많은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법안들, 굶주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2천5백만 북한 동포들과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한다. 대한민국에 기도제목들이 넘쳐난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신앙에세이

"문이 닫힌 것 같더니 다른 쪽 문이 활짝 열렸다"

김철희 목사
(일본어예배부 담당)

올해 3월, 계획대로라면 일본 고베 오쿠보홀리채플교회에서 성도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그분들이 1년 전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불발됐다. 일본측 교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오쿠보홀리채플교회에 온라인(영상)으로라도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선뜻 6명의 성도들이 지원해주셨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진지하고 열심히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했다.

참여한 성도 6명의 반응이 참으로 뜨거웠다.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되었다", "제자로서 진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고 싶다" 등의 간증을 쏟아냈다. 오쿠보홀리채플교회는 이기훈 목사님(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사역 담당), 이영선 목사님(오사카 온누리교회) 등 여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온누리교회 양육 DNA를 심어놓은 곳이다.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바통이 일본어예배부에 넘어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인 성도들의 신앙이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별로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크게 웃어준다. 또한 반응도 크게 해주신다. 감동의 피드백도 매 시간 해주신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이 보였는데, 일본인 성도들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일본어예배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과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더 이상 일본 현지 교회를 돕는 것이 시간상 어려워졌다. 그런데 자꾸 오쿠로홀리채플교회가 신경이 쓰이고 성도들이 눈에 밟혔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께 이번에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 성도님들과 함께 OBC 가스펠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다카하시 정숙 목사님(오쿠로홀리채플교회)께서 적극 나서서 주선해주셨다. 그 덕분에 일본인 20여 명이 OBC 가스펠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음의 영향력을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일본 교회와의 인연이 놀라울 따름이다.

일본에는 8천 개의 교회가 있다. 그 중에서 약 30%가 러브소나타 협력교회이다. 팬데믹이라는 닫힌 문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해서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고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올해는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어예배부의 꿈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일본어예배부의 꿈은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환상이다. 일본 열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선교적 동반자가 되어 세계 선교를 함께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이 닫힌 것 같더니 다른 쪽 문이 활짝 열렸다. 주저앉아 울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문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일본어예배부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가 바로 그 선물을 받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

그들의 목표는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먼저 싸울 필요가 없었고, 그들이 전면적으로 공격해 오지도 못할 것을 알았기에 게릴라식 습격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게릴라식 습격일지라도 공사를 훼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적들의 위협은 사방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습에 반응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서 자신들이 진압했다"고 거짓 보고를 할 것이 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한 손으로는 일할 도구를 들고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17절).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21절).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사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기습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22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일하고 경계를 세우며 악한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악한 반대자들의 공격은 외부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악한 대적자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 조롱과 비웃음, 물리적인 위협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영적 공격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로 인한 인간의 고집들, 죄악의 습관들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대적들은 낙심과 불평, 두려움, 불신, 염려, 불안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직접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과 싸울 때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서로 엮이지 말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용서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다 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 가득할 때 무너지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비웃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이들에게 신경을 몰두하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 일어납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결국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 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라고 불평했습니다"(10절).

불평과 두려움, 불안, 염려가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은 족장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나서 10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염됐습니다. 세상에 가장 전염되기 쉬운 것이 부정적 생각입니다.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불안은 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장소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과 2명이 동일한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낙심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14절).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한 기억이 있는 영혼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반대자들의 음모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지도자 느헤미야를 따르고 순종하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비전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고 멋진 말로 포장되어도 그 비전에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없으면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23절).

옷도 벗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참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어떤 악한 반대자들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반대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느 2:2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반대자들과 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9).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6개월 만에 진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주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곳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여러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하루에 500~6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7~8월보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긴장이 많이 풀렸는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방역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병원에서는 6개월 가까이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2, 3차 진료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환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역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집중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이 환자를 6개월 가까이 받지 못하고 병원을 폐쇄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용 방역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 법인에서 1년 치가 넘는 양의 의료용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병원이 6개월 만에 진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병원을 시작하면서 3개 진료과(가정의학과, 여성과, 치과) 중에서 일부 진료를 유료화 했습니다. 이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택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권리와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비 정도만 받는 형태로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병원이 돌보고 있던 사회취약계층은 계속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현지인 어린이 S의 소식을 전합니다.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서 심장수술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계속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술 일정도 잡혔습니다.

그 환자의 나이가 어려서 수술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 환자의 집도를 맡은 현지인 의사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의 수술과 그 이후 모든 과정에서 회복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환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희 병원 외과의사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준비 절차는 잘 마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까다로워진 이곳의 입국 절차로 인해서 아직 이 땅을 밟지 못하고 계십니다.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 병원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병원 직원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아시아 B국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병원이 2, 3차 병원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병원 직원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술로 전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이다윗, 헵시바 선교사(중앙아시아 B국)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韓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시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식근 송재호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퀸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유영 김한국 안사무엘 이우람 신현민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기범 김바울 김반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혜경 네트라 권예슬렌스 마주리누룽 민현식 바랏라말리 박근명 박씨마 싱루이마눕 사가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병구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고원규 권수진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삼인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주영 김종균 김태광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나사라 토모 노동준 노태규 민혜영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이호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빌 케 배명지 백승현 서영찬 서영철 송동주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신현아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명도 오준현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우형석 윤경선 윤신혁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윤효정 이경건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관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일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은희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새힘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기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진교 서장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민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율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장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구본영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병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한A 김영한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재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섭 신영각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이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립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피터드빈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홍예은 황보승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QT 베이직 세미나: Good Morning! God

일시: 10월 12일(2주간 시청 가능)

준비: 성경책, 필기구, 강의안 (다운로드)

회비: 2만 원

강사: 유수열 목사(온누리교회 부목사)

대상: QT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 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꿈의집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초등, 중학교 방과 후 돌봄 이용시설에 필요한 물품
문의: 이화자 센터장(031-399-0931)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배식, 설거지, 뒷마무리 등(11:00~14:00/점심식사 제공)
문의: 조의진 팀장(02-703-6011)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10시~16시, 내곡 쉼터,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보조(미술, 산책 동행)
문의: 김혜라 사회복지사(02-985-3609)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쪽방 주민과 말벗, 방 청소 등 봉사
문의: 이찬희 팀장(02-3789-5119)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추수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9/18(금) 이천선교 김진남 선교사 모친상 고 김정순

9/18(금) 양재특별한초대 안동석 성도 부친상 고 안흥영

9/19(토) 경기A 함정철 장로 모친상 고 김용희

9/19(토) 영등포구로 장영순 성도 모친상 고 성순덕

9/21(월) 마포 홍광식 집사 모친상 고 박도분

9/21(월) 한강 신성철 성도 부친상 고 신현두

9/22(화) 강서 이의협 성도 부친상 고 이달영

9/23(수) 서초A 고 홍정화 안수집사

9/23(수) 송파B 최종숙 성도 부친상 고 최정곤

CGNTV 추석특집 프로그램

CGNTV와 함께, 가족과 함께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한가위 보내세요

9.27 일요일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꼬마 예배자' 이하민 어린이와 하민이네 가족이 나누는 은혜로운 찬양

오후 6시 20분

9.27 일요일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35년간 가정교회의 기초와 틀을 다진 최영기 목사가 나누는 가정예배의 은혜

오후 5시 40분

9.28 월요일

예수님이 좋아요

말씀과 함께,
쏭쏭남매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추석 생활

오후 4시

10.4 일요일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랜선가족들이 나누는
가정예배의 은혜와
명절 가정예배 노하우

오후 8시 10분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